

# 가금인플루엔자에 대한 잘못된 보도와 바로잡기

최용삼 팀장  
(주)마니커 홍보팀

본지에 이렇게 글을 올리는 것은 최근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한 가지 이슈에 대해 언론에서 취하고 있는 태도에 대해 지적하고자 해서입니다. 바로 조류독감, 정확히는 가금인플루엔자에 대한 언론의 보도 행태입니다.

가금인플루엔자에 대한 언론의 과잉보도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당사자 중의 하나이지만, 이 글을 단순히 피해자의 항변으로만 보시지 말고, 과연 최근의 가금인플루엔자 관련 보도가 국민의 알권리를 정확히 충족시키고 있는지, 오히려 무분별한 보도로 인해 언론의 주인이라 할 수 있는 국민(시청자, 구독자)들에게 혼란과 피해를 안겨주고 있지는 않은지 냉정하게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뉴스·시사·교양 TV 프로그램의 취지가 언론보도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프로그램들에서 가금인플루엔자 관련보도에 관한 문제제기가 당연히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저뿐만 아니라 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모든 이들의 판단입니다.



## 1. 가금인플루엔자의 실체

가금인플루엔자는 감염된 조류를 통해 타 조류 또는 인간에게 전염되는 인수공통의 전염병입니다. 독감이라는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바이러스를 통해 전염되는 호흡기성 질병입니다.

따라서 사람에게 주로 전염되는 경로는 감염된 조류와 직접 접촉이 있거나, 감염된 조류의 배설물을 다루는 과정에서 전염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서 사람간의 전염 가능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한술 더 떠서 며칠 전에는 태국에서 가금인플루엔자에 감염된 닭고기를 먹고 사람이 사망했다는 추측성 기사까지 나와 소비자들을 극도로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가금인플루엔자가 발생할 경우 감염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은 당연히 닭과 직접 접촉하는 사람입니다.

지난 1월 26일 질병관리본부는 고위험군(발생농가의 종사자와 살처분자, 현장 방역요원, 주변지역 노출자 등) 총 1,594명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아무 이상이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도 상품화된 닭과 계란을 접촉하는 일반 소비자가 감염 걱정으로 소비를 기피하고, 언론에서 앞다투어 부정적인 보도를 하는 것은 한 마디로 넌센스라고 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 가금인플루엔자는,

가. 호흡기성 질병이기 때문에 고기를 먹고 소화기를 통해 감염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감염된 닭에 대한 조리 과정에서의 전염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 우리 육계(肉鷄)의 생산, 유통과정을 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가금인플루엔자에 감염된 닭은 감염 2~3일만에 죽기 때문에 상품화가 불가능합니다. 죽은 닭은 털과 피를 제대로 뽑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가금인플루엔자가 발생했던 어느 나라에서도 닭고기를 먹고 사람이 감염된 사례는 없습니다.

나. 가금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열에 약해 우리 식습관상 감염의 우려가 없습니다.

만약 감염된 닭이 유통되었다 하더라도 가금인플

루엔자 바이러스는 75℃에서 5분, 80℃에서 1분, 끓는 물에서는 즉시 사멸하기 때문에 닭고기를 회로 먹지 않는 한 감염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닭고기를 회로 먹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가정은 그야말로 만약을 가정한 경우이며 실제로 사육에서부터 유통까지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제)가 적용되는 국내의 닭고기 제조, 유통 시스템상 가금인플루엔자에 걸린 닭고기가 시중에 유통될 가능성은 전무합니다.

다. 오염 가능성이 있는 닭은 모두 살처분, 매몰되어 유통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 2. 언론 보도의 문제점

### 1) 자극적인 장면의 반복보도

가금인플루엔자 발생이후 각 언론에서는 경쟁적으로 발생농가의 닭이나 오리틀 살처분하는 광경을 집중 방송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데 앞장섰습니다.

그 결과 닭고기, 오리고기의 소비가 급감되었고 국내 축산농가와 제조, 유통업체들은 심각한 경영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같은 내용을 보도하더라도 화면구성이나 기자 멘트의 뉘앙스에 따라 결과가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 있는지는 언론에서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방역 활동을 벌이고 있는 관계자들을 조명해준다고 해서 그 보도의 정확성이 의심받는지, 국민의 알권리가 훼손당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어쩌면 고의적으로 자극적인 장면을 내보냄으로써 시청자들을 화면 앞에 붙들어두고자 하는 빛나간 저널리즘이 작용하지는 않았나 하는 의심까지 생깁니다.

과거에 광우병 파동 당시에도 그랬지만, 광우병에 걸린 소가 비틀거리는 장면이라든지 이번처럼 닭, 오리가 대량으로 살처분 되는 장면 같은 것은 시청자들의 머리속에 오랫동안 남아 있게 됩니다.

이 경우 사태가 진정되고 난 뒤에도 약 10%의 소비자는 당시의 잠재의식 때문에 특별한 이유 없이 해당 제품의 소비를 중단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심사숙고하지 않은 화면 편집 하나로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그만큼 큰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 지난날 광우병이나 구제역 파동 당시 위에 예시한 자극적인 화면으로 소비가 급감하고 소비자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이번에 가금인플루엔자 발생상황을 보도하면서 실상을 정확하게 알리는 한편, TV화면에서도 방역에 혼신을 다하는 관계자들을 집중 보도함으로써 농가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합니다.

일본의 이번 가금인플루엔자 관련 보도자세에 대해 누구도 일본의 언론이 업자보호를 위해 국민들에게 당연히 알려야 할 내용을 왜곡하거나 숨겼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일본의 언론은 2004년 말까지 가금인플루엔자, 광우병으로 인해 외국으로부터의 수입금지 상황이 지속될 경우 GDP의 0.11%(5,414억엔)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면서 경제에 미칠 영향부터 걱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일본 언론의 이와 같은 적극적인 농가, 업계, 소비자 보호 노력으로 인해 일본에서도 가금인플루엔자가 발생했지만, 닭고기 소비량은 한국이 60%

이상 감소한데 비해 10%선의 감소에 그치고 있습니다.

〈관련보도 예시〉

- '경주 가금인플루엔자 살처분 완료' (12/27, 연합뉴스 사진판)
- '닭과 저승사자' (1/27, 연합뉴스 사진판)
- '살처분 장면' (각 방송 뉴스화면에 반복 방송)

2) 동남 아시아의 가금인플루엔자 상황에 대한 무차별적 보도경쟁

이번 동남아시아 가금인플루엔자 발생과 관련하여 각 언론에서는 국내 발생상황과 연계시켜 뉴스 밸류를 높이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아직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가금인플루엔자와 동남아시아에서 사람까지 사망에 이르게 한 가금인플루엔자간의 관련성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질병예방센터에서는 베트남의 가금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국내의 바이러스는 유전자 배열형이 다르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 캄보디아 등은 우리와 양계관련 산업의 교류가 전혀 없는 국가들입니다.

그런데도 WHO의 담당자 한 사람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이 국내 언론에서 대서특필 되는가 하면, 심지어는 홍콩의 관련 전문가라고 하는 특정인의 추측성 사건이 검증된 것인 것 마냥 보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쯤 되면 국내 언론의 보도행태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보도인지 혼란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사실로 밝혀진 내용은 당연히 보도되어야 할 것이며, 국내 소비자들도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태국에서 사망한 사람이 죽은 닭고기를 먹고 죽었다, 가금인플루엔자로 판명될 가능성이 높다」

라는 특파원발 기사를 통해 은연 중에 「닭고기를 통해서도 사람이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뉘앙스의 충격적인 보도까지 내보내는 언론에 대해 이제는 한 떨감까지 느끼게 됩니다.

어떻게 가능성이라는 말 한 마디로 포장해서 ‘닭고기를 먹고 감염될 수 있다’라는 확인되지도 않았고 있을 수도 없는 사실을 기사화시키는지요?

#### 〈관련보도 예시〉

- ‘가금인플루엔자 폭발하면 홍콩서만 30만명 사망’ (1/29, KBS 뉴스네트워크, 출처 : 홍콩연합)
- ‘가금인플루엔자 인간 전염 가능성 증거발견’ (1/27, 연합뉴스, 출처 : 하노이 신화)
- ‘가금인플루엔자와 인간 결합시 수백만명 사망’ (1/27, 연합뉴스, 출처 : 하노이 AFP)

#### 3) 이중적인 보도형태

가금인플루엔자 발생이후 지금까지 언론에서는 전문가를 동원하고 분석기사를 내보내는 등 나름대로 심층보도를 통해 「국내산 닭고기를 먹어도 된다」라는 요지의 기사를 많이 집행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소비자와 농가, 업자를 진심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노력은 없었습니다. 소비자에게는 가금인플루엔자의 위험성과 예방대책 등을 장황하게 설명해서 최대한으로 불안감을 증폭시켜놓고 “그러나, 닭고기를 익혀 먹으면 괜찮다고 합니다”라는 식의 면피성 뻔뻔함으로 전형적인 옐로우 저널리즘의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익혀 먹으면 괜찮다”라는 표현도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만약에 가금인플루엔자에 걸린 닭고기가 유통되었을 경우를 가정해서 쓰는 표현이었지만, 앞에 언급했듯이 국내 닭고기의 제조, 유통 시스템에서 그럴 가능

성은 전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소비자를 안심시키려고 하는 그 표현이 “가금인플루엔자에 걸린 닭고기가 유통될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로 전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스크린한 바에 의하면 아마도 가금인플루엔자의 정확한 특성, 인체감염의 가능성 진단, 시중에 유통되는 닭고기, 계란제품이 안전한 이유, 동남아시아와 우리나라의 방역관리, 사육환경 등에 대한 비교, 사례 등을 통해 확인된 내용만으로 이루어진 정확한 분석 등은 단 한번도 기사화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분석 없이 가능성과 추측뿐인 자극적인 기사가 대부분이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 불안감을 증폭시킬 수 있는 기사는 경쟁적으로 내보내면서 막상 안심시킬 수 있는 기사에는 지극히 인색한 것이 이번 사태를 다루는 언론의 공통점입니다.

이러하면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에서 미국의 CDC에 의뢰한 검사 결과에서 국내에서 발생한 가금인플루엔자는 베트남의 것과 유입경로와 유전자형이 다르며 인체감염 위험이 극히 적다는 내용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기사화되지 않았습니다.

### 3. 가금인플루엔자 문제가 TV 프로그램에 방송되어야 하는 이유

저희는 TV 프로그램을 통해 위기에 빠진 농민과 국내 업자들을 도와달라고 호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적어도 언론이 가금인플루엔자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사실을 바탕으로 정확히만 보도해 준다면

언론이 내세우는 국민의 알권리도 충분히 충족하고 관련업자(업계)의 피해도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다루는 언론사는 지금 국민과 업자(업계) 모두를 피해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소비자)들은 자극적이고 무분별한 보도로 인해 혼란에 빠진 상태에서 그저 막연한 불안감만으로 무조건 닭고기, 계란 소비를 중단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내 양계관련 산업 전체가 붕괴의 위기에 있습니다.

닭고기와 계란은 우리 국민의 균등한 영양섭취를 위한 훌륭한 영양 공급원입니다.

국내의 닭고기 산업은 동남아시아와 달리 사육에서부터 유통까지 체계적인 생산, 배송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생산과정에서는 HACCP(위해요소 중점관리제) 인증을 획득한 위생적인 시설에서 생산,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업계와 정부의 끊임없는 노력에 의해 지금과 같이 선진화된 닭고기 산업이 정착되었는데 이번 가금인플루엔자의 발생과 이에 대한 언론의 과장보도로 인해 양계산업은 크나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번 가금인플루엔자 파동으로 인해 약 70만명에 가까운 관련업체 종사자(가족포함)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고 사료업체, 동물약품 제조업체 등 유관업체까지 포함하면 그 피해규모는 엄청날 것으로 추산됩니다.

구체적으로는,

- ① 양계(육계, 산란계) 농가 144,000 가구 × 4 (가족) = 576,000명 (농림부 자료)
- ② 닭고기 업체 및 도계장 임직원 (약 50개 업체) 5,500명 × 4 = 22,000명 (추정치)
- ③ 종계, 부화장 직원 (약 100개소) 1,000명 × 4 = 4,000명 (한국계육협회)

④ 닭고기 프랜차이즈 약 20,000 개소 × 4 = 80,000명 (한국 프랜차이즈 협회)

⑤ 닭고기 도소매점 약 4,000개소 × 4 = 16,000명 (추정치)

⑥ 닭고기 전문 음식점

이며, 이 수치는 또 다른 피해자인 오리업계의 종사자는 제외한 것입니다.

또한 가금인플루엔자로 인한 피해액은 감염으로 인한 살처분, 혈값 처분 등의 1차 피해액 1,265억원, 소비위축으로 인한 관련업체 피해액 4,200억원 등 5,465억원에 이르며, 이 상황이 6개월간 지속시 2조 1천억원의 직, 간접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한국계육협회 자료).

언론의 기사 하나하나에 이 많은 사람이 일희일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장되고 때로는 왜곡된 보도에 의한 엄청난 피해는 어디에 가서 호소해야 합니까?

사망자는 고사하고 감염자, 심지어는 감염 의심자 한 사람 나오지 않은 이 나라에서 닭, 오리, 계란을 생화학 무기처럼 인식시켜 제품의 소비가 절반이나 감소하고 관련산업 자체를 붕괴위기에 빠뜨린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무쪼록 결자해지의 자세로 언론에서는 이 문제를 정밀하게 짚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언론의 주인인 국민에게 알려야 할 사실을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알려서 생긴 결과라면 저희도 언론을 탓하지 않겠습니다.

긴 내용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C

**닭고기 많이 사랑해주세요.**